

농협, 드론·방제기 1000대 동원 연휴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총력

강호동 회장,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ASF·AI·FMD 등 확산위험 경고

명절 전후 ‘집중 소독의 날’ 지정
농가 소독 지원용 무이자자금 편성

농협이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가 열렸다.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호동 회장은 설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의 확산 위험을 경고했다. 이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3가지 핵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존 소독 차량 외에도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축사 주변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설 연휴를 앞둔 11일 가축질병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발맞춰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통해 농장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이는 명절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의 방역 실행력 제고도 추진한다.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지원용 무이자자금 700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소독약품 등 5억 원 상당의 긴급 방역용품도 현장에 보급했다. 이 밖에 가축질병 발생 농가를 위해 상호금융 대출금 기한 연기 및 납입 유예, 재해특례 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병행하고, 피

해 복구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가축방역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 연휴 기간 가축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 또 가축질병 예방 및 민관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휘하에 공동방제단을 꾸리고, 취약농가 소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 10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국적 방역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위해 요금 합리화 당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푸르내마을 방문
농촌관광 준비상황·체험시설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각지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도시민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및 안전한 운영 등의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12일 경기 연천의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했다.

그는 현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관내 농촌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계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경기 연천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 숙박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등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과 연계해 ▲농촌관광상품 개발·운영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 ▲국민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를 비롯해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 韓 산재의료대상 수상자 선정

동해병원 김홍주 병원장, 취임 이후
영동권 최대규모 재활전문병원 안착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로 동해병원 김홍주 병원장(사진)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은 전국 15개 산재 병·의원 의료진 중에 산재환자 치료와 직업·사회복지 지원,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홍주 병원장은 2019년 6월 취임 이후 지난 6년간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을 강원 영동권 최대 규모 재활전문병원으로 안착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소화기전문센터 개설과 내시경실 확장, 최신 장비 도입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산재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지난 2023년 개원 40주년을 맞아 종합병원으로서의 진료 영역 확



대에도 기여했다.

김 병원장은 외과 응급 수술과 야간 응급실 근무를 자처하며 의료 현장의 최일선을 지켜왔고, 지난해에는

‘소마 의료봉사단’을 창설해 지역 취약 계층 대상 의료봉사 활동과 연탄 후원 등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병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동해병원을 최첨단 재활 시스템과 따뜻한 인술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산재 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인제대 상계백병원에서 외과과장과 병원장을, 인제대 백중암의료원 의료원장을 지냈다.

/세종=한용수 기자

포스코 협력사, 3540억 우대보증 받는다

무보, 철강산업 수출금융 지원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포스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하며 철강 수출공급망 회복에 나선다.

무보는 12일 주식회사 포스코의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총 200억원을 무보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무보가 포스코 중소 협력사에 총 354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관세장벽 강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탈탄소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대·중소기업 균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지원 기업은 티지에스파이프다. 이 회사는 포스코산 철강을 구매해 강관을 제조한 뒤 일본·미국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수출자금 10억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보증료(업체당 최대 4000만원)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티지에스파이프는 “무보가 지원한 수출자금을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은행의 무역보험금 출연을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수출공급망강화보증’을 출시했다. 현재는 포스코 외에도 현대차·기아, HL만도의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총 1조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협력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보는 향후 조선산업을 비롯해 소비재, K-뷰티 등 국가전략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 전반으로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에 3%p 이자 지원

산업부-KIAT, 이차보전 지원사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일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는

행에서 빌리는 신규 대출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에 대해 최대 3%포인트(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기업별 대출심사 후 확정)에서 정부 지원금리(이차보전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자보전율은 ▲운영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모두 3.0%p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다. 지원 대상은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광양 등 지난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지역별 접수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광양은 전남지역산업진흥원, 포항은 포항테크노파크, 서산은 서산상공회의소가 접수를 맡는다.

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펙,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총 11곳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설 연휴 휴게소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점검

기후부, 용인휴게소 찾아 현장점검
6일간 17곳서 이동형 충전서비스 운영

정부가 설 연휴 직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연휴 기간에는 이동형 충전서비스를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12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를 찾아 관계기관 및 충전업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이차관은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충전소를 둘러보고, 충전사업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후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167곳의 충전시설 549기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점검 중이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현장 인

력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정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달 하순 이후 전국 수소충전소 238곳(고속도로 휴게소 39곳 포함)을 대상으로 ▲정상가동 여부 ▲일일점검 이행 ▲사고 대응 비상대응계획 ▲연휴기간 운영계획 등을 살폈다.

13일부터 6일간은 고속도로 휴게소 17곳에서 이동형 충전서비스(총 38기)를 운영한다. 전기차 1대당 20kW(약 100km 주행분)의 전력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호현 차관은 “설 연휴 기간 국민이동이 집중되는 만큼,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기관·업체와 함께 사전 점검과 긴급대응 체계를 철저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